



나는 예배자입니다.

공동기도문

[부모님]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,
화려하고 겉모습만 멋진 일보다,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더
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

[자 녀]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,
가정에서,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순종의 어린
이가 되게 해주세요.

[가족 합창] 우리 가정이 내 고집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
을 먼저 선택하게 하옵소서.

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,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!

말씀나눔

Q.1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고, 누구의 말씀과 방
법대로 순종하여 지었나요?

Q2. 부모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,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
순종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나요?

Q3. 부모님 말씀 잘 듣기, 친구 사랑하기, 감사하기 등 이번 한 주 동안 내
가 꼭 실천하고 싶은 순종의 모습은 무엇인가요?

중일교회 가정사역부



2026 VISION

훈훈한 구역, 함께 키우는 아이들

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[전도서 4장 9절]



2026년 9월 셋째주

가정

하나님께
여배 드립니다.



중일교회 가정사역부

성경이야기

충일이는 엄마가 “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면 치워야 해” 라고 하시는 말씀을 분명 들었지만, “듣는 것과 실제로 정리하는 건 다른 일”이라며 치우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했어요.

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?

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성전을 지을 때 자기 생각이나 마음대로 바꾸지 않았어요. 크기, 모양, 구조, 재료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성전을 지었어요.

성전을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

"네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,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겠다."

하나님은 멋지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보다,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.

부모님 말씀 잘 듣기, 친구 사랑하기, 거짓말하지 않기, 감사하기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소중한 순종의 모습입니다.

예배순서

사 도 신 경 다 같 이

찬 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같 이

말 씬 봉 독 열왕기상 6장 1~14절 다 같 이

성 경 이 야 기 하나님의 말씀대로
순종하며 살아요 설 교 자

말 씬 나 눔 다 같 이

합 심 기 도 다 같 이

공 동 기 도 다 같 이

주 기 도 문 다 같 이

★ 찬양과 말씀나눔과 공동기도문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

★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.